

# 병역특례문제, 본질을 해결해야



윤위종의  
잠시 쉬표

군 병역특례가 논란이다. 손흥민에겐 병역면제 혜택을 주면서 한류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에겐 왜 안 주느냐는 항의에서부터, 50년 가량된 병특 제도를 뜯어고칠 때가 됐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전면 철통해야 한다 등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법개정을 하겠다고 거들면서 병특 문제는 국회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올해 말 군에 입대하는 둘째에게 물어봤다. 손흥민이 병역특례 받은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상 외로 “당연히 줘야 한다”는 ‘쿨’한 답이 돌아왔다. 금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했다는 건 잘 모르겠고, 한·일전에서 승리해 (일본을 꺾었다는) 기쁨을 줬기 때문에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큰아들은 “도대체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병역혜택을 주네, 마네 논란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

사실, 군에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요즘 군대가 예전보

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는 기피의 대상이다. 왜 그럴까. 그 답을 찾는 게 이번 병역특례 논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흔히 병역 의무를 하는 2년 내외의 시간은 인생에서 별도움이 안 되는, 허공에 뜨는 시간이 된다. 공부를 하건, 직장을 다니건 상관 없이 군생활 기간에는 그런 활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역특례 제도도 그래서 생겼다. 국가적으로 볼 때 군에 있는 것보다 사회에서 체육이나 예술활동의 맥을 끊지 않는 게 국익에도 움이 된다고 보고 병역면제 혜택을 준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가 항아리 모양에서, 호리병도 아닌 깔대기 모양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노년층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젊은층은 얇아지고, 출산기 피로 영유아는 더 얇아지는 깔때기 모양이다. 당연히 군대에 갈 젊은이들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얼마 전까지 병특 문제보다 더 이슈가 됐던 국민연금 문제도 본질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군대도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체질개선과 함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전체 군 입대 대상 젊은이들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특례제도보다 더 큰 문제, 군에 갈 젊

은이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전세계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핀테크,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군도 이런 추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군에서 ‘드론(Drone)병’ ‘우주병’ 등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몇년 전에는 대기업과 손잡고 전방 초소에 정밀 카메라와 센서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로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돼야 한다. 줄어드는 인력에 대비해 최대한 인력을 적게 활용하면서도 국방에는 문제가 없는 첨단 군대로 바뀔 필요가 있다.

획일되고 몰개성을 추구하는 예전 사고의 틀로 요즘 젊은이들을 ‘총알받이’ 정도로 여기며 징집해서는 안 된다. 젊은 이들이 군에서 자신의 개성과 특성과 장점을 살려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찾아줘야 한다. 군에 가는 게 황금 같은 시기를 허망하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특기를 더 살리는 시기로 만들 어줘야 한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펙을 쌓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21세기의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한화그룹, 취업 주제 ‘불꽃 콘서트’

한화그룹은 오는 11월까지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미래 유망 직종의 창업·취업을 주제로 ‘불꽃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총 5차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식음료(F&B)와 패션·디자인, 헬스케어, 교육, e스포츠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들이 나와 경험을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100문 100답’ 형식의 토크쇼를 진행한다.

/한화그룹



우리은행, 한가위 맞이 소외계층 사랑나눔 행사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5일 밝혔다. 이번 한가위에는 서울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을 위해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2억원을 기부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한가위 생필품 키트를 구성해 서울시 내 소외계층 5000가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KT, 올레tv 10주년 기념 리버사이드 영화 상영회

KT가 올레 tv 텐 페스타의 3분기 ‘무비’ 테마에 맞춘 이벤트로 리버사이드 영화 상영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리버사이드 영화 상영회는 한강 반포지구 유선장에서 14일 저녁 7시에 열린다. 한강 야경과 함께 선상 위에서 야외 영화를 볼 수 있는 행사다. 상영작은 9월 올레 tv 극장동시영화로 서비스될 예정인 ‘신과 함께-인과연’이다. 이벤트 응모는 7일까지 KT닷컴에서 참여할 수 있다.

/KT



설빙, 쿠웨이트 진출… 중동 공략 본격화

설빙은 쿠웨이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 사업을 기반으로 무역업 및 정부와 기업간 라이센싱을 전문으로 하는 무하라브 알가님(Muhallab Alghanim) 그룹과 연내 정식으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빠른 시일 내 설빙 1호점을 쿠웨이트 중심상권 내 오픈할 계획이다. 설빙 신성장사업본부 조규호 이사(왼쪽)와 쿠웨이트 마스터프랜차이즈 파트너 CEO 써나얀 알가님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설빙

## 교육장관 바뀌면 정책 달라질까



기자 수첩  
한용수  
(정책사회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곧 물러난다. 대입 제도 개편 등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교육정책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 지명된 유은혜 의원도 첫 소감으로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입 제도의 경우만 놓고 보면, 3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3이 치를 대입 제도의 변경 시한은 지난 8월 이미 지났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선발비율이 30% 이상인 체제에서, 수능 평가방식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나머지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치르게 된다.

수능 위주 선발의 경우는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도권 일부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 상위권 주요 대학의 선발 방식의 변화는 도미노처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능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공존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절대평가 과목의 경우 변별력이 낮아져 경쟁이 줄겠지만, 주류 과목인 상대평가 영역을 놓고선 경쟁이 더 심화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5개정교육과정과 고리된 대입 정책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학교 공부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 제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유예하면서 현 고1이 경험하고 있다. 당시엔 전 정부의 대입 정책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점 등이 면죄부로 이해됐으나, 이젠 그렇지 않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학 입시 제도를 단순하고 공정하게 바꾸겠다’던 공약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교육부가 정책적 판단을 유보하고, 국가교육회의와 대입

/hys@

### 인사

- ◆ 서울 은평구 ◇ 5급 전보 △ 문화관광과장 구일완 △ 생활복지과장 김진구 ◇ 5급 승진 임용△사회적경제과장 이동웅 △ 막은도시과장 이해란
- ◆ 한국국방연구원 △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유영철 △ 군사발전연구센터장 안광수 △ 국방인력연구센터장 현익재 △ 국방자원연구센터장 강인호 △ 전력투자분석센터장 이주형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선임△ 삼근부회장 임병재
- ◆ 목원대학교 △ 인문대학장 이윤화 △ 교육대학원장 김태호

### 부제

- ▲ 고영신(여주 교연학원 원장)·석현(신한금융지주회사 브랜드전략팀 부장)·석훈씨(여주 교연학원 원장) 부친상 = 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장지 여주추모공원. 02-3410-3151~3
- ▲ 이진희씨 별세, 김삼교(KB증권 전하동지점 지점장)씨 시모상 = 4일 오후 9시 40분,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7일. 052-256-6896
- ▲ 김영순씨 별세, 이승택(IBK투자증권 경영기획실장)씨 장모상 = 4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7일 오전 5시. 02-958-9721
- ▲ 안진호씨 별세, 안승욱(코치 코리아 차장)·승환

(S&T모티브 흥보팀 과장)씨 부친상 = 5일 부산시 민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9시 30분. 051-636-44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쇄·판권	이 장 규
인쇄·인쇄·인쇄·인쇄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 00206 2002년 5월 28일 제 40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 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139호

풀무원 ‘2018 국가브랜드대상’ 대상 수상

Pulmuone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풀무원은 국가브랜드진흥원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수상 기업 중 종합식품기업은 풀무원이 유일하다.

올해 3회째를 맞은 ‘국가브랜드대상’

은 개인 및 기업 브랜드가 국가 이미지에

/박인웅 기자 parkiu7854@